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의 발전 방향 및 구축 경로 분석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Directions and Construction Pathways of Participator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eums

주 저 자 : 저국녕 (Di, Guo Ning)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학과 박사과정

공 동 저 자 : 이상해 (Lee, Sang Hae)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학과 석좌교수

교 신 저 자 : 최경란 (Choi, Kyung Ran)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학과 교수
ran@kookmin.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5.2.810>

접수일 2025. 05. 03. / 심사완료일 2025. 05. 09. / 게재확정일 2025. 05. 12. / 게재일 2025. 6. 30.

Abstract

This study reviews existing research on participator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eums, analyzes academic progress and limitations,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It first outline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participator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eums, then analyzes their construction paths from policy, characteristics, and practice perspectives. The study finds that most research is case-based and lacks a systematic framework for analyzing participatory mechanisms tailor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proposes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including constructing participatory mechanisms, dissolving power and spatial boundaries, and reconfiguring participatory behaviors with digital technologies.

Keyword

Participation(참여),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eum(무형문화유산관), Development Directions(발전 방향), Construction Path(구축 경로)

요약

본 연구는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문적 진전과 한계를 분석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이론적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먼저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의 발전 방향을 정리하고, 이어서 정책 지향, 특성 주도, 실천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의 구축 경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개별 사례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에 맞춘 체계적인 참여 메커니즘 분석 프레임워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미래 발전 방향으로, 참여 메커니즘 구축, 권력 및 공간 경계 해소, 디지털 기술을 통한 참여 행동 재구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의 발전 방향 : 참여 이론에서 참여적 박물관으로

- 2-1. 무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관
- 2-2. 참여 이론에서 참여적 문화로

- 2-3. 참여적 문화에서 참여적 박물관으로

3.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의 구축 경로 : 정책 지향, 특성 주도, 실천 전환을 중심으로

- 3-1. 정책 지향: UNESCO 및 각국 정책에 나타난 참여 이념
- 3-2. 특성 주도: '살아있는 특성'은 '참여성'을 강조함
- 3-3. 실천 전환: 전문가 주도에서 커뮤니티 참여로

4. 결론 및 전망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 배경

(1) 무형문화유산관의 전환과 참여 메커니즘의 대두

2022년, 국제박물관협회(ICOM)는 새롭게 개정된 박물관 정의를 통과시켰다. 'A museum is a not-for-profit,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that researches, collects, conserves, interprets and exhibits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 They operate and communicate ethically, professionally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offering varied experiences for education, enjoyment, reflection and knowledge sharing.'¹⁾ 정의에서는 처음으로 커뮤니티의 참여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무형유산'이 박물관 서비스의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윤리 원칙(Ethics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서 강조한 커뮤니티(communities), 집단 및 관련 개인은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과 맥을 같이한다. 2) 오늘날에는 커뮤니티, 집단 및 관련 개인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실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세기 중후반 이후, 신박물관학의 영향 아래 학계는 전통 박물관의 전환과 현대 박물관이 직면한 도전과 책임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으며, 많은 논의에서 '관람자 중심'이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

없게 되었다. 박물관이 관람자의 새로운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전시가 관람자의 시각에 기반하여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이미 학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참여'라는 개념은 참여 주체, 참여 단계, 참여 목적의 다양성에 따라 여러 형태의 참여를 포괄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시에 있어서도 참여 주체는 기관과 관람자 간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라, 다원적 주체들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승자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주체로서 참여 메커니즘 안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며, 상황과 목적에 따라 그 역할 변화를 변증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무형문화유산의 '살아있는 특성(living nature)'과 경적인 전시 사이의 모순

정태적 전시의 한계는 무형문화유산이 특정한 상태로 고정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정태적 전시(예: 실물 진열, 사진, 문자 설명)는 여전히 무형문화유산관의 주요 전시 수단이며, 이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은 하나의 고정된 상태로 표현되어 그 역동적인 전승 과정을 드러내기 어렵다. 비록 동적 전시(동적 전시는 일련의 사진이 연결되어 구성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음)를 도입한다고 해도, 참여 메커니즘이 결여되면 관람자는 여전히 수동적인 시청자에 머무르게 된다. 따라서 이 모순의 핵심은 살아있는 특성이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를 요구하는 반면, 정태적 전시는 '일회성 제시'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3) 무형문화유산의 '살아있는 특성(living nature)'과 원상태 전시 간의 모순

원상태 전시의 한계는 무형문화유산이 특정한 시점에 고정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원상태 전시는 진정성(authenticity)과 원형성(originality)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며, 전통 박물관 전시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아 무형문화유산관은 전시 과정에서 객관적 진정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역

1)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Museum Definition, (2025.02.04.) www.icom.museum/en/resources/standards-guidelines/museum-definition/
2) UNESCO, Ethics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25.02.04.) <https://ich.unesco.org/en/ethics-and-ich-00866>

사적 장면을 재현하고 전승자의 현장 공연을 더하면 그 문화의 독창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전시 실천이 무형문화유산을 특정한 역사 시점에 고정시키려 할 때, 이러한 단편적 역사 재현은 무형문화유산의 자연스러운 진화를 저해하고, 무형문화유산이 현대 사회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인 생존과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 모순의 핵심은 '살아있는 특성'이 무형문화유산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현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원상태 전시는 무형문화유산을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고정시킨다는 데 있다.

1-1-2 연구 목적

본 논문은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문적 진전과 한계를 분석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후속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 연구에 이론적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의 발전 현황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첫째,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무형문화유산관의 개념, 기능 및 의미를 설명하였다. 둘째, 참여 이론, 참여적 문화, 참여적 박물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의 발전 방향을 정리하였으며, '참여'라는 핵심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또 어떻게 무형문화유산관의 연구 영역으로 유입되었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평가하였다. 셋째, 정책 지향, 특성 주도, 실천적 전환의 관점에서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의 구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정리하고 전망하였다.

2.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의 발전 방향 : 참여 이론에서 참여적 박물관으로

2-1. 무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관

2-1-1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유네스코는 유산 보호의 실제 요구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1987년,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을 기반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이후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이 개념은 '민속 문화(1982)', '전통 문화와 민속 창작(1989)', '구전 및 무형 유산' 등으로 불려왔다. 2003년 유네스코에서 통과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서는 이 개념을 공식적으로 '무형문화유산'으로 확정하였다.

각국은 무형문화유산의 번역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협약>은 처음에 유엔의 여섯 개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로 초안이 작성되었다. 영어판에서는 이를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으로 번역하였고, 중국어와 프랑스어판에서는 'nonphysical cultural heritage'으로 번역하였다.³⁾ 현재 유네스코는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를 엄격하게 사용하고 있다.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는 중국어 번역에서도 여전히 '비물질 문화유산(非物质文化遗产)'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춰 그 구체적인 내포를 해석하고 발전시키고 있다.⁴⁾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이란 각 커뮤니티, 집단, 때로는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여기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 사고 표현, 표현 형태, 지식, 기술 및 관련 도구, 실물, 수공예품과 문화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며, 각 커뮤니티와 집단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의

3) 宋俊华, '非物质文化遗产概念的诠释与重构', 学术研究, 2006.09, No.09, p.118

4) 저국녕, 김상호, 윤재은, '무형문화유산 전시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 적용방법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 2024.06, Vol.9, No. 2, p.356.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이러한 커뮤니티와 집단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 다양성과 인간 창의성에 대한 존중을 강화한다.
5)

2-1-2 무형문화유산관의 개념, 기능 및 의의

'무형문화유산관'이라는 표현 방식은 박물관이 지닌 실물 소장 공간으로서의 형태적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무형문화유산 관련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동적 기능을 강조하는 용어로, 무형문화유산 전시 공간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무형문화유산관은 여전히 박물관학(Museology)의 학문적 연구 범주에 속하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전승, 전시를 핵심으로 하는 전시 공간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관은 무형문화유산의 '살아 있는 특성'을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대중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창작하고, 공유하며,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 의의는 무형문화유산관이 대중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뿐 아니라,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전승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커뮤니티와 대중에게 상호작용, 학습, 창의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문화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한다.

2-2. 참여 이론에서 참여적 문화로

2-2-1. 참여 이론

참여 이론은 구체적인 이론 정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서 널리 활용되는 '참여' 개념을 의미한다. 이는 처음 정치학 분야에서 등장하였다. 현재 '참여' 이론의 선행 연구는 주로 정치학적 관점(참여적 민주주의 이론), 사회학적 관점

5) UNESCO, Text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25.03.12.)
<https://ich.unesco.org/en/ethics-and-ich-00866>

(참여적 발전 이론), 심리적 및 정신적 관점(참여적 영성/Participatory Spirituality), 예술학적 관점(참여적 예술 이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학적 관점(참여적 문화 이론)에서 분석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Web 2.0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참여적 문화'라는 개념이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커뮤니케이션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이 융합된 종합적인 이론이다.

[표 1] '참여' 이론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자	연구명/책명	연구 내용
정치학적 관점 참여적 민주주의 이론 (Participatory Democracy)		
정의: 참여적 민주주의는 정부 형태로, 시민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과 정책에 직접 참여하며, 선출된 대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요소를 결합한 것이다.		
Jean-Jacques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1762)	루소가 말하는 '참여'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를 의미하며, 루소는 자유의 개념을 참여 활동의 탄탄한 기초 위에 세웠다.
Carole Pateman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1970)	참여적 민주주의 이론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참여적 민주주의 이론은 민주주의가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치 과정에서의 투표뿐만 아니라, 직장, 사회,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직접적인 참여도 포함된다.
사회학적 관점 참여적 발전 이론 (Participatory Development)		
정의: 참여적 발전은 지역 주민들이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핵심 개념은 권한 부여이다. 참여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Sherry R. Arnstein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1969)	참여의 사다리 이론(Arnstein's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을 제안하였으며, 이 이론은 공공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정도를 설명하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Robert Chambers	The origins and practice of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1994)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PRA)' 방법을 제안하였다.
심리적 및 정신적 관점 참여적 영성 (Participatory Spirituality)		
정의: 호르헤 페레르(Jorge Ferrer)는 참여적 영성(Participatory Spirituality) 개념을 제안하였다. 참여적 영성은 인간의 영성이 본질적으로 인간과 우주, 생명, 혹은 현실의 창조적 힘과의 공동 창조적 참여(cocreative participatio		

n)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Jorge N. Ferre	Participation and the Mystery (2017)	이 책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여러 논문과 책의 장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참여적 사고를 초개인 심리학, 통합 및 명상 교육, 현대 영상 및 종교 연구의 핵심 문제에 적용하였다.
예술학적 관점: 참여적 예술 이론 (Participatory Art)		
정의: 참여적 예술은 대중이 창작 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이 작품의 공동 작가, 편집자, 그리고 관찰자가 되는 예술 창작 방법이다. 이는 관객의 신체적 참여를 강조한다.		
Claire Bishop	Participation (2006)	관객이 관찰자의 역할에서 창작자의 역할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Stine Høholt	The Art Museum Today: Participation as a Strategic Tool (2017)	이 글은 2014년 아르켄에서 열린 예술 전시를 바탕으로, 참여와 참여자, 그리고 문화 기관, 공공 기관, 경제 기관으로서의 박물관 간의 다양한 관계를 개괄하였다.
커뮤니케이션학적 관점: 참여적 문화 이론 (Participatory Culture)		
정의: 참여적 문화는 Web 2.0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 세계 네티즌들이 주체가 되어, 특정한 정체성을 통해 미디어 텍스트를 창작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전파하며, 네트워크 상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형태로 하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개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문화 양식을 말한다.		
Henry Jenkins	Textual Poachers: Television Fans and Participatory Culture (1992)	참여적 문화의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그는 참여적 문화가 주로 미디어 문화에서 사람들 간의 참여 행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았다.

2-2-2. 참여적 문화

참여적 문화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변혁으로 인한 문화적 전환을 나타내며, 그 특성은 인터넷 환경의 전체적인 특성과 부합한다. 특히 Web 2.0 환경에서는 기존 참여적 문화의 의미가 학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풍부함을 더하게 되었다. 참여적 문화의 이론과 실천은 더 이상 '(드라마) 팬의 텍스트 생산 활동', '네트워크 사용자의 광범위한 문화 생성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의 사회적 생산과 참여적 사회 구축' 단계로 진입하였다. 니나 사이먼(Nina Simon)이 제안한 '참여적 박물관 이론'은 '문화의 사회적 생산과 참여적 사회 구축 단계'의 대표적 실천 결과물로, 참여적 문화를 새로운 미디어 전파 영역에서 더 구체적인

박물관 전시 실천으로 전환시켜, 현대 박물관의 정체성 전환 및 참여 메커니즘 구축에 이론적 지침을 제공하였다.

[표 2] '참여적 문화'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자	연구명/책명	연구 내용
Henry Jenkins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Media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2006)	참여적 문화의 구체적인 특성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였다: 낮은 진입 장벽, 창작과 공유의 장려, 학습 분위기 조성, 성취감, 커뮤니티 감각
岳改玲	新媒体时代的参与式文化研究 (2010)	신미디어 기술의 발전이 소비와 생산 사이의 격차를 메웠다고 언급하였으며, 참여적 문화는 문화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고 일반인의 참여 장벽을 낮추었다.
周荣庭 管华璜	参与式文化：一种全新的媒介文化样式 (2010)	참여적 문화의 내포, 특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권성호, 김성미.	소셜 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재개념화: Jenkins의 '컨버전스'와 '참여문화'를 중심으로(2011)	소셜 미디어 시대의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구축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된다고 제안하였다: 구축력, 전파력, 반성력.
段莉	参与式文化：实践拓展与理论聚焦 (2022)	참여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재균형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질서 있는 참여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付佳, 赵树旺	从文本盗猎到文本围猎：参与式文化空间的建构 (2022)	신미디어의 권한 부여 배경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정치적 참여, 사회적 참여, 지식 생산, 그리고 오락적 참여를 활용하여 텍스트 형태를 창조하고, 이를 통해 참여적 문화 공간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Nina Simon	The Participatory Museum: Entering an Era of Museum 2.0 (2010)	'참여적 박물관'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참여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참여 모델을 정리하였다.

2-3. 참여적 문화에서 참여적 박물관으로

2-3-1 참여적 박물관

앞 장에서는 참여적 문화에 대해 정리하였다면, 본 장에서는 박물관에서 '참여'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니나 사이먼(Nina Simon)이 제안한 '참여적 박물관 이론'에 대한 정리와 고찰이다. 참여적 박물관 이론은 참여적 문화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박물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이론으로 간주된다. 둘째는 박물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참여형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사례 중심의 분석에 치우쳐 있으며, 체계적인 참여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무형문화유산관이라는 특수한 유형에 대한 연구는 일부 존재하지만,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 3] 박물관에서 '참여'와 관련된 선행 연구

연구자	연구명/책명	연구 내용
喻翔	参与式博物馆理论的内涵及可行性研究 (2015)	니나 사이먼(Nina Simon)의 참여적 박물관 이론의 이론적 출처와 그 실현 조건 및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Lærke Mygind, Anne Kahr Hällman & Peter Bentsen	Bridging gaps between intentions and realities: a review of participatory exhibition development in museums (2015)	참여적 전시 개발 실천에 대한 실증 연구를 회고하며, 그 방법, 참여 정도, 이론적 근거, 장애 요인 및 촉진 요인에 대해 탐구하였다.
Mathieu Viau-Courville	Museums Without (Scholar-)Curators: Exhibition-Making in Times of Managerial Curatorship (2016)	2015년에 시작된 두 개의 참여적 전시 프로젝트(그중 하나는 퀘벡의 원주민과 이누이트 커뮤니티의 문화 역사를 다룸)를 설명하며, 관리형 큐레이션 실천에서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대중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을 탐구하였다.
Hong Lee, Dae Jaeng Kang, Seungeun Kim	MUSEUM AS A (DE)COLONIZING AGENCY AND PARTICIPATORY LEARNING SPACE: SOUTH KOREAN EXPERIENCE (2019)	일본 식민 역사 박물관(MIJCH)을 사례로 들며, 박물관이 대중의 참여적 학습을 통해 사회 정의와 역사적 기억을 형성하고, 탈식민화 과정을 촉진하는 방식을 강조하였다.
SIMON H	Participation and R	니나· 사이먼의 참여적

연구자	연구명/책명	연구 내용
ØFFDING, METTE RUNG, AND TONE ROALD	ceptivity in the Art Museum - A Phenomenological Exposition (2020)	박물관 이론은 예술 미적 체험에서의 한계를 드러낸다. 참여적 박물관 이론은 참여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미적 체험의 깊이와 독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Simone Taffea, Meghan Kelly	Exchanging Expertise across Cultures and Time: Participatory Design Approaches for Creating Community Museums (2020)	호주 디자인 팀이 보르네오 켈라빗(Kelabit)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박물관을 설계하는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디자이너의 역할이 협력의 각 단계에서 전문가와 촉진자 사이에서 변동된다고 지적하였다.
Lorena Sanchez Quinol, Rafael Martínez García	On ruralities and resistances: the management model of Pusol School Museum (Spain) and the challenges of reciprocal participation between museum and society (2020)	푸솔 학교 박물관의 참여적 관리 모델을 분석하였으며, 박물관을 학교와 사회와 긴밀히 연결하는 '석류나무 모델'을 독특한 문화 관리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다.

3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의 구축 경로 : 정책 지향, 특성 주도, 실천 전환을 중심으로

3-1 정책 지향: 유네스코(UNESCO) 및 각국 정책에 나타난 참여 이념

본 절에서는 유네스코(UNESCO), 중국, 한국, 일본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에서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유네스코와 각국의 정책에서는 모두 전승자와 관람자에게 참여의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식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 UNESCO, 중국, 한국, 일본 국가 정책에 나타난 참여 이념

책명	참여와 관련된 조항
정규 및 비정규 교육, 도제 제도 등의 실용적인	107.(h) 참여적 교육 방법과 게임, 도제 제도 등의 실용적인

책명	참여와 관련된 조항
UNESCO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2016) ⁶⁾	정규교육 방법 활용하여 사람들이 무형문화유산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커뮤니티 센터와 협회, 박물관 기록 보관소 및 기타 유사한 기관 109. (a) 무형문화유산의 실천자와 보유자가 그들의 유산과 관련된 전시, 강연, 세미나, 토론회, 교육의 조직에 참여하도록 한다; (b) 참여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무형문화유산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활성) 유산임을 전사한다; (e) 실천자와 보유자가 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참여적 시스템을 실현하도록 한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 보호법(2011) ⁷⁾	전파 미디어 115. 정보 기술 기관이 정보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비정규적 전승 경로를 강화하도록 장려하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랙티브 프로그램과 게임을 제작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업무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十四五' 무형문화유산 보호 규정(2021) ⁸⁾ (1) 민족의 전통과 풍습을 존중하고, 국민의 주체적 지위와 창의적 표현 권리를 존중하며, 무형문화유산이 국민의 생산과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추진한다. 국민이 보호와 전승에 참여하게 하고, 보호 성과를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여 국민의 정체성, 참여감,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2) '커뮤니티 속 무형문화유산' 사업을 전개한다. 커뮤니티 주민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주민의 참여감, 소속감, 결속력을 향상시킨다.
한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25) ⁹⁾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유산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일본 <문화재 보호법> (2022) ¹⁰⁾	문화재 보존활용지역계획의 인정) :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는 문화재 보존활용지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의 개최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문화재보존심의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다.

6) Ibid., (2025.04.05.)

7) 中华人民共和国非物质文化遗产法, (2011.02.25.)

3-2 특성 주도 '살아있는 특성'은 '참여성'을 강조함

무형문화유산은 여러 가지 독특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왕원장(王文章)은 <무형문화유산개론>에서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다. 즉, '독특성, 살아있는 특성, 전승성, 유동성, 종합성, 민족성, 지역성'이다.¹¹⁾ 이 일곱 가지 특성은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이 일곱 가지 특성은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살아있는 특성(Living Heritage)'은 핵심적인 특성이다. 무형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 속 일부로 존재하며, 오늘날의 생활 실천 속에서 유지되고 활용되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이러한 살아있는 특성은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 전시 차원에서 보면, 정적인 전시와 달리 '살아있는' 전시는 무형문화유산의 무형성, 동적 성격, 참여성을 충분히 드러내야 하며, 전승자와 관람자가 무형문화유산의 생산과 생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장 시연이나 체험 참여와 같은 방식은 관람자가 무형문화유산의 내포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https://www.gov.cn/flfg/2011-02/25/content_1857449.htm

8) '十四五'非物质文化遗产保护规划, (2021.05.25.)
<https://zwgk.mct.gov.cn/zfxgkml/fwzwhyc/202106/P020210609400854201916.pdf>

9)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25.03.25.)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159&viewCls=lsRvsDocInfoR#AJAX>

10) 文化財保護法, (2022.06.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159&viewCls=lsRvsDocInfoR#AJAX>.

11) 王文章, 『非物质文化遗产概论』, 文化艺术出版社, 2006, pp.53-58

[표 5] 무형문화유산의 특성

특성	내용
독특성	표현 형식의 독특성, 유일성 및 비재생성에 나타나며, 그 속에 담긴 사상, 감정, 의식, 가치관은 모방하기 어렵다.
살아 있는 특성	살아 있는 특성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서의 활동이나 움직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의미한다.
전승성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은 대개 세대 간의 구전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승 활동이 중단되면 문화의 소멸을 의미한다.
유동성	무형문화유산은 전승과 공유 과정에서 끊임 없이 확산되며, 확산 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상호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발전한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적인 일관성을 유지한다.
종합성	무형문화유산은 각 시대의 문화 생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특정 시대, 환경, 시대 정신의 종합적인 산물이다. 표현 형식과 기능에서 종합성을 나타낸다.
민족성	특정 민족에 고유하며, 그 민족의 독특한 사고 방식을 반영한다.
지역성	어느 민족이든 대부분 특정한 생활과 활동 지역이 있으며,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은 해당 민족에 영향을 미친다.

3-3실천 전환: 전문가 주도에서 커뮤니티 참여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서 유네스코는 '커뮤니티(communities)'¹²⁾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정치·문화·사회적 맥락에 따라 사람들에게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가 발표한 관련 문서들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와 그 구성원인 집단 및 개인은 주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이자 향유자를 의미하며, 이

12) 'communities'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두 가지 표현, 즉 '공동체(共同體)'와 '커뮤니티(communit y)'로 번역될 수 있다. '공동체'는 한자 '공동(共同)'과 '체(體)'로 구성되며, 공동의 목표, 가치관 또는 이익을 강조한다. '커뮤니티'는 영어 'community'를 음역한 표현으로, 범위가 더 넓고, 공동 관심사, 지리적 위치 또는 기타 요인으로 형성된 모든 집단을 지칭할 수 있다. '공동체'는 전통적이고 긴밀한 사회적 연계를 강조하는 반면, '커뮤니티'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영어 원문에서 'communities'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므로, 본문에서는 한국어 번역 시 '커뮤니티'를 사용하였다.

들은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의 실행과 전승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무형문화유산의 연구 및 보호 분야에서 전승자는 특정 전통 지식을 숙련되게 습득한 존재로, 일반 커뮤니티 구성원과 다른 '문화 전문가'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객관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학술 연구와 보호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일반인의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가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모든 사람이 문화 전승자'라는 관점이 제시된 이후, '커뮤니티'의 범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정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문화 전승자임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커뮤니티는 균질적이지 않으며, 하나의 커뮤니티나 집단 내에서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보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¹³⁾ 즉, 관련 지식의 숙련 정도 차이로 인해 커뮤니티 내부 구성원(전승자) 간에는 계층성과 다양성이 존재한다.

일본 인류학자 와타나베 요시오(わたなべ よしお)는 민간 지식의 숙련 정도에 따라 민간 지식 보유자를 '전지(全知, 모든 것을 알고 있음)', '반지(半知, 어렵듯이 알고 있음)', '무지(无知, 전혀 알지 못함)'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¹⁴⁾

양리후이(杨利慧)와 장사(张霞) 등은 현대 구술 신화에 대한 민족지 연구에서 신화 지식의 이해 정도에 따라 전승 집단을 '적극적 전승자'와 '소극적 전승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지역의 전설, 지역 역사 및 민간 전통에 관심을 가진 노인, 민간 엘리트, 관련 신을 신앙하는 향회(香會)

13) UNESCO, Training of Trainers on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ies for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25.04.20.) <https://ich.unesco.org/en/events/training-of-trainers-on-strengthening-national-capacities-for-implementing-the-2003-convention-for-the-safeguarding-of-intangible-cultural-heritage-00555>

14) 渡辺欣雄, '民俗知識の動態研究', 民族译丛, 译者梁景之, 1994.11, No.6, pp.46-51.

의 대표 또는 일반 신자들로, 이들은 비교적 풍부한 신화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신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정의된다. 후자는 '일정한 신화 이야기를 알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신화 지식이 적고, 주로 이야기의 핵심 모티프만을 전할 수 있을 뿐, 신화를 완전하고 생동감 있게 이야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신화 지식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로 설명된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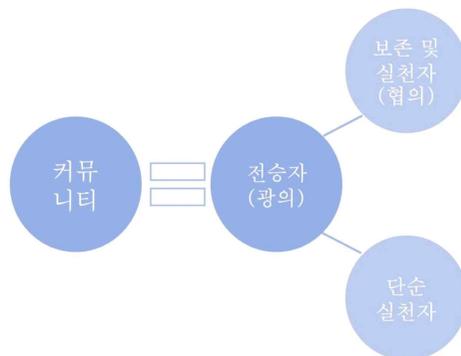
안더밍(安德明)은 간쑤성 텐수이 지역에서 행해지는 농사 관련 재액 방지 의식(일종의 주술적 방법으로 재난을 해소하려는 민속 제의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특정 민속 지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정도에는 양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기우제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음양선생(주술을 행하는 사람) 등 극소수의 전문인들만이 이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인들의 지도와 주재는 의식 활동이 온전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보장이 된다. 16) '안더밍(安德明)은 커뮤니티 구성원을 '보존자 또는 전파자'와 '일반 참여자'로 구분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실천자'로 간주된다. 이 둘의 차이는 추상화된 전통 지식의 숙지 정도에 있으며, 적용 분야, 성격, 기능 면에서는 일반 참여자도 전문인과 마찬가지로 깊은 이해와 본질적인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커뮤니티의 모든 관련 구성원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이자 향유자이다. 이들 사이의 주요한 차이는 일부 구성원이 보존 및 실천의 능력을 갖춘 반면, 다수는 단순한 실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연구의 필요에 따라, 무형문화유산관에서의 '전승자'와 '관람자'의 범주를 보다 명확히 구분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유산관에서의 '전승자'는 '보존 및 실천자'를 지칭하며, 이는 좁은 의미의 전승자를 의미한다. 반면, '관람자'는 커뮤니티 외부의 '외부 관람자'와 '단순 실천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무형문화유산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부 관람자가 참여 과정을 통해 전승자로 전환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문가 중심에서 커뮤니티 참여 중심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나아가 '모두가 전승자'가 되는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다.



[그림 1] 커뮤니티와 전승자의 관계

3-4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의 구축 경로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은 정책적 요구를 실현하는 공간적 매개체로 가능하며, 그 구축은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며, 구축 과정에서는 커뮤니티의 참여를 중시해야 한다. 커뮤니티 참여의 전제 조건은 커뮤니티 구성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전승자는 광의와 협의의 두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

니나 사이먼(Nina Simon)은 참여적 박물관을 '관람자가 콘텐츠를 중심으로 (around content) 창작 (create) 하고, 공유 (share) 하며, 타인과 연결 (connect) 될 수 있는 장소'로 정의하였다. 17)

따라서 참여적 박물관 이론의 정의에 따르면,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은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15) 杨利慧, '现代口承神话的传承与变迁-对四个汉族社区民族志研究的总结', 青海社会科学, 2011.01, No.01, p.193

16) 安德明, '非物质文化遗产保护中的社区: 涵义、多样性及其与政府力量的关系', 西北民族研究, 2016.04, No.04, p.78

17) Simon Nina, 『The Participatory Museum. Museum 2.0』, Museum 2.0, 2010, p2

창작하고, 공유하며,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관의 구축은 '컨텐츠를 중심으로', '창작', '공유', '연결'이라는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4 결론 및 전망

본 논문은 무형문화유산관의 전환과 참여 메커니즘의 대두, 무형문화유산의 '살아있는 특성(living nature)'과 정태적 전시 간의 모순, 그리고 '살아있는 특성'과 원상태 전시 간의 모순이라는 세 가지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참여 이론, 참여적 문화, 참여적 박물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의 발전 방향을 정리하였고, 이어서 정책 지향, 특성 주도, 실천적 전환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의 구축 경로를 명확히 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참여적 박물관에 대한 개별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형문화유산관에 관한 연구 역시 사례 분석에 머무르고 있어, 무형문화유산이라는 특수한 문화유산 유형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참여 메커니즘 분석틀이 아직 구축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네 가지 제언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무형문화유산관에 특화된 참여 메커니즘 구축

무형문화유산관의 참여 메커니즘을 구축하기에 앞서, 해당 공간 내 이해관계자가 다원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관(관장 측), 전승자, 관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천 환경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그 정체성에 기반하여 이들이 공간 서사에서 갖는 권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여적 박물관 이론은 참여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하나의 완성된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향후에는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역

할과 권력 구조를 기반으로 무형문화유산관의 참여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참여적 무형문화유산관에 특화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설계 방법론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2) 무형문화유산관 권력 경계의 해소

무형문화유산관의 참여 메커니즘 구축이 완료된다면, 그에 따라 무형문화유산관의 권력 경계는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계 해소는 기관, 관람자, 전승자 간의 권력 재분배를 통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기타 사회 기관, 커뮤니티, 그리고 전 지구적 문화 네트워크 간의 심층적인 연계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권력 경계 해소의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문화 서사의 탈중심화 현상으로, 이는 특정 주체의 일방적 서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가 병존하는 다층적 문화 서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3) 무형문화유산관 공간 경계의 해소

무형문화유산관이 정적인 전시 공간에서 동적인 참여적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간의 경계는 점차 해소된다. 이러한 해소는 물리적 공간의 확장, 가상 공간과의 융합, 그리고 박물관 기능의 경계를 넘는 확장에서 나타난다. 참여 메커니즘의 개입은 이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한다.

(4) 디지털 지능 기술이 참여 행동을 재구성함

디지털 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무형문화유산박물관 내 참여 행동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도구의 활용에 그치지 않고, 박물관과 관람자 간 상호작용 방식의 심층적인 변화로 나타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박물관의 참여 메커니즘은 더욱 지능화되고, 개별화되며, 다양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1. Rousseau, Jean-Jacques, 『The Social Contract』, Translated by He Zhaowu, The Commercial Press, 1980
2. Pateman, Carole,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3. Mansbridge, Jane J, 『Beyond Adversary Democracy』, Basic Books, 1980
4. Santos, Boaventura de Sousa, editor, 『Democratizing Democracy: Beyond the Liberal Democratic Canon』, Verso, 2005.
5. Thomas, John Clayton, 『Public Participation in Public Decisions: New Skills and Strategies for Public Managers』, Jossey-Bass, 1995
6. Ferrer, Jorge N, 『Participation and the Mystery: Transpersonal Essays in Psychology, Education, and Relig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7
7. Jenkins, Henry, 『Textual Poachers: Television Fans and Participatory Culture』, Routledge, 1992
8. Simon, Nina, 『The Participatory Museum』, Museum 2.0, 2010.
9. 권성호, 김성미, 『소셜 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재개념화』, 미디어와 교육, 2011
10. Arnstein, Sherry R,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1969
11. Chambers, Robert, 'The origins and practice of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World Development, 1994
12. Høffding, Simon, Mette Rung, and Tone Roald, 'Participation and Receptivity in the Art Museum: A Phenomenological Exposition', Curator: The Museum Journal, 2020
13. Taffea, Simone, and Meghan Kelly, 'Exchanging Expertise across Cultures and Time: Participatory Design Approaches for Creating Community Museum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020
14. Viau-Courville, Mathieu, 'Museums Without (Scholar-)Curators: Exhibition-Making in Times of Managerial Curatorship',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2016
15. 최지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참여적 박물관으로의 실천을 위한 방향성 도출』, 경희대학교-대학원, 2021
16. 정유리, 『뮤지엄에서 여정에 기반한 참여적 전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2020
17. 岳改玲, 『新媒体时代的参与式文化研究』, 武汉大学-新闻传播学院, 2010
18. www.gov.cn
19. www.law.go.kr